

안녕하세요. 태국 UTCC대학에 글로벌인재양성을 통해 파견다녀온 자유전공학부 리더십과 조직과학 19학번 박가은입니다. 처음 프로그램을 신청했을 때는 큰 기대 없이 경험을 쌓자며 신청했었는데, 한 달이 지난 지금 저는 이 프로그램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태국 UTCC대학은 Asean environment라는 과목으로 계절학기를 진행합니다. 배우는 내용은 주로 경영학과 관련된 내용이며 총 2명의 교수가 각각 5회정도 수업을 진행하며, 중간에 특강 2회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수업이 없는 날은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을 참여하는데, 태국의 관광명소와 쇼핑몰을 방문하거나, 근교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상당히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버디라는 이름의 교환학생 도우미가 존재하는데, 친구들이 굉장히 상냥하고 친절합니다. 저는 이 친구들과의 교류가 가장 인상깊고 유의미했습니다. 버디들은 미얀마,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다국적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영어실력도 상당히 한국문화에 관심있는 친구들도 다수 있어 많이 의지가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개인적으로 만남을 가져 서로의 문화를 교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영어실력이 크게 향상되었는데, 아마 이 친구들의 공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태국의 날씨는 우기와 건기로 이루어져있어, 우기인 현지는 상당히 덥고 습합니다. 또한 방콕의 경우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데, 비오는 날은 교통체증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대략 서울의 교통체증과 유사한 편입니다. 교통은 보통 “그랩”과 “볼트” 어플을 통해 택시를 잡는 것이 다수이며, 간혹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50바트를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또한 오토바이를 많이 이용합니다. MRT와 BTS같은 지하철도 많이 이용합니다. MRT는 VISA카드로 이용 가능합니다. 버스는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현지 친구와 함께 타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현지 택시를 잡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유심구매는 현지 AIS에서 한 달동안 이용가능한 유심을 이용했고, 공항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현지 물가는 한국에 비하면 저렴한 편입니다. 단, “현지”가 들어가는 것들(야시장 팻타이, 과일 등)은 저렴하지만, 이외의 것들(헬스장, 루프탑 등)의 이용료는 한국에 비해 약 10%가량 더 비싼 편입니다. 또한 외국인임을 이용해 사기를 치려는 현지인도 간혹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택시뿐만 아니라 야시장에서 더 심하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친구를 사귀었다는 점이 가장 만족스럽습니다. 외국인 친구들과 개인적으로 교류하고 서로 문화를 나누며 서로의 현지 음식을 함께 먹었는데, 미얀마친구들이 떡볶이를 어떻게 먹는지 몰라서 그동안 샤브샤브처럼 먹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충격받았습니다. 현지에 두끼가 있으니, 만일 현지에서 외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어 한식을 소개하고 싶으시다면 참고바랍니다. 또한 학교 근처에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점들이 많으니 기회가 된다면 많이 이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특히 버디에게 추천해달라고 하면 친절하게 추천해줍니다.

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주저하시고 계시다면, 지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태국은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물가도 저렴한 편이고, 비행시간도 길지 않아 심적인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견문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될거라 확신합니다.